

비판 현수막 뜯은 광주시장, 경찰조사 석달째 “차일피일”

시장 수행원들, 개인사정으로 조사 일정지연 고소장 접수 90일째 “적법한 절차따라 조사” 수행원 2명 조사 이후 강 시장도 조사 예정

국립5·18민주묘지 정문 앞에서 일부 5·18단체가 내건 현수막을 뜯어낸 혐의로 고소된 강기정 광주시장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일정 조율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0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공로자회장은 지난 5월 23일 강 시장과 수행원 2명, 관련 부서 공무원 2명 등 총 5명을 공동상해·공동재물손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두 단체는 5·18 43주년 추모제가 열린 지

난 5월 17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앞 삼거리에서 강 시장 등이 자신들이 내건 현수막을 뜯고 회원에게 각목을 던져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당시 5·18추모제 참석을 위해 민주묘지를 찾던 강 시장과 일부 일행은 관용차에서 내려 강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직접 뜯어냈으며, 이 과정에 현수막을 부착했던 일부 5·18단체 회원들과 욕설이 섞인 고성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광주시청 현수막 관련

부서 공무원 2명만 조사했다.

경찰은 강 시장과 동행한 수행원 2명과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수행원들에게 2차례 이상 출석을 요구했다. 수행원들이 개인 사정을 들어 조사를 미루면서 일정 조율이 늦춰졌다. 강 시장에 대한 조사는 현수막 담당 공무원들과 수행원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야 한다.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은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정확한 신원이 고소장에 기록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소 지체됐다”



며 “시장에 대한 조사는 수행원 조사를 마친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뒤 시작할 예정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

오유나기자



가스총 휴대 보안관, 지하철 경계 강화

서울 지하철 경계가 강화된 20일 서울 당산역에서 시청방향 지하철 2호선에서 지하철보안관이 2인 1조로 순찰을 돌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경계근구가 완화될 때까지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신림동 대낮 성폭행...강간상해→강간살인

피해자, 업무 위해 출근하던 중 참변

경찰이 대낮 신림동 산속 돌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최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돌레길 등산로에서 최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지인은 그가 사건 당일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이용하던 등산로를 통해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던 A씨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직후인 19일 오후 3시40분께 결국 숨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9시께 (A씨 사망 전) 구속영장 신청서대로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심사 중)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씨는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도 진술했다.

현재 최씨는 너를 사용한 것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강간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피해자가 사망하며 최씨에 대한 혐의는 강간살인죄로 변경됐다”며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 등을 토대로 살인 고의 입증에 주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뉴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